

• 레위기 2:1-2, 11-13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제사 전에 미리 곱게 빻아 준 비해야 했습니다(레 2:1). 그리므로 예배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하면 공예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 때문에 부서지지 않은 일상의 덩어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 어디에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곱게 빻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곡식을 곱게 빻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이 필요합니다. 소제는 내 자아와 전 존재를 완전히 부수고 해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온데간데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골쇄신의 헌신과 충성만 남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들이 모인 공동체는 ‘찢기고 부어지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안아줍니다. 이물감 없이 아름답게 섞이고 어우러집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헌신이 없는 이들의 공동체는 서로 섞이지 않고 자기 의만 드러내며, 서로 파괴하고 부수는 파멸로 귀결됩니다.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레 2:11). 꿀은 고대 사회에서 이방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또한 곁에 발라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누룩은 반죽을 벌효시켜 본래보다 부풀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곁만 그럴듯하게 꾸민 제물, 과장되고 변질된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소제에는 소금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레 2:13).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은 완전히 녹아 사라지되, 이로써 무언가 계속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감칠맛이 나게 합니다.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막 9:50). 헌신과 충성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헌신도 충성도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신에서 내 모습, 내 이름이 소금처럼 완전히 지워질 때 참다운 예배, 참다운 헌신이 됩니다.

나는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자입니까?

- ① 나의 예배와 헌신에서 배제해야 할 꿀과 누룩은 무엇입니까?
- ② 내 모습, 내 이름, 내 자아가 완전히 녹아 사라졌습니까?